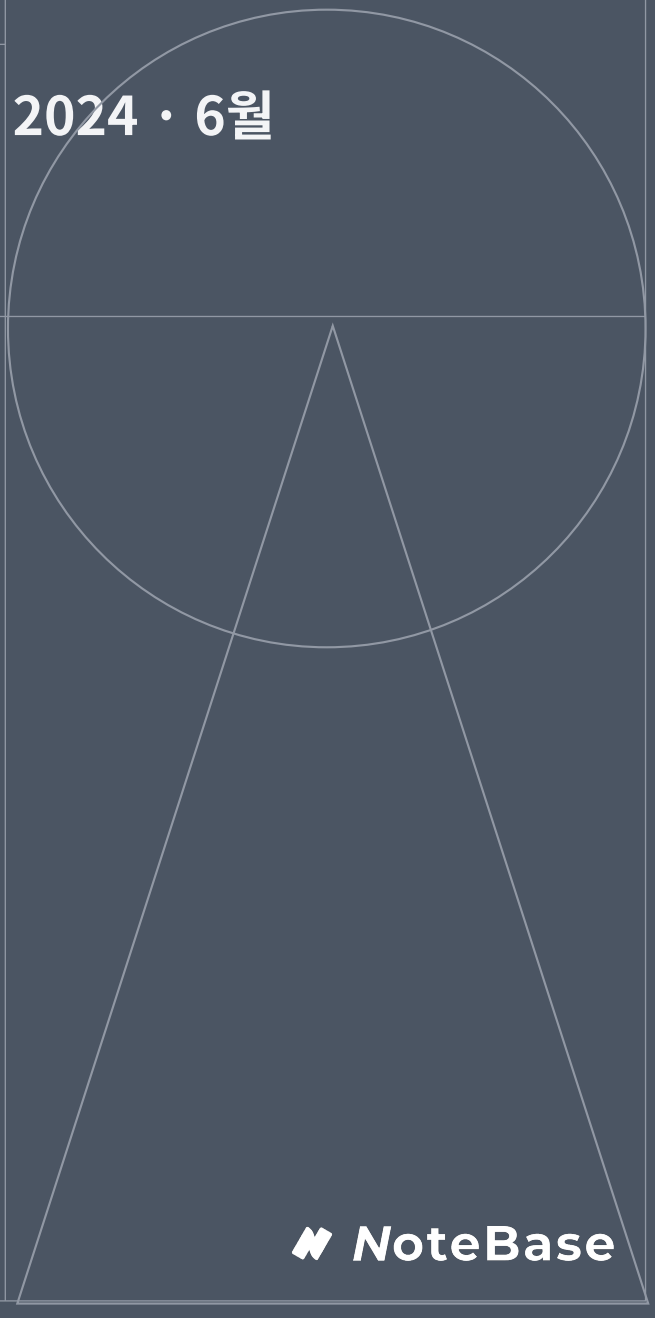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4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4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4 · 6월

문 1. 음운 탈락의 유형이 다른 것은?

①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②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만드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③ 한번 들러서 힘이 되는 말이라도 건네고 싶다.
④ 인성이 뛰어난 사람은 드뭅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들러서'는 '들르- + -어서'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형태이다. 다른 표현에서 나타나는 자음 'ㄹ' 탈락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사노라면' — 자음 탈락: '살- + -노라면 → 사노라면'으로 분석된다. 어간 '살-'의 끝 자음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한다.

② '만드시던' — 자음 탈락: '만들- + -시- + -던 → 만드시던'으로 분석된다. 어간 '만들-'의 끝 자음 **'ㄹ'이 '-시-'의 'ㅅ' 앞에서 탈락**한다.

③ '들러서' — 모음 탈락: '들르- + -어서 → 들러서'로 분석된다. 어간 '들르-'의 끝 모음 **'ㅡ'가 '-어서'의 'ㅓ' 앞에서 탈락**한다. '들르-'에 있던 두 'ㄹ'은 그대로 남으므로 'ㄹ' 탈락이 아니다.

④ '드뭅니다' — 자음 탈락: '드물- + -ㅂ니다 → 드뭅니다'로 분석된다. 어간 '드물-'의 끝 자음 **'ㄹ'이 '-ㅂ니다'의 'ㅂ' 앞에서 탈락**한다.

①·②·④는 자음 'ㄹ' 탈락이고, ③은 모음 'ㅡ' 탈락이므로 탈락의 유형이 다른 것은 ③의 '들러서'이다.

NoteBase

문 2. 반의관계의 유형이 다른 것은?

① 길다 ↔ 짧다

② 살다 ↔ 죽다

③ 좋다 ↔ 나쁘다

④ 춥다 ↔ 덥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살다'와 '죽다'는 생명의 유무를 나누는 **상보 반의 관계**로, 두 상태 사이에 중간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간 정도가 있어 한쪽을 부정해도 다른 쪽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 등급 반의 관계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반의관계의 유형은 두 말 사이에 중간 단계를 인정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등급 반의 관계는 중간 정도가 있지만, 상보 반의 관계는 해당 의미 영역을 둘로 나누어 한쪽의 부정이 다른 쪽의 긍정이 된다.

① '길다 ↔ 짧다': 등급 반의 관계이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 길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길지 않다'가 반드시 '짧다'를 뜻하지는 않는다.

② '살다 ↔ 죽다': 상보 반의 관계이다. 생명의 유무라는 의미에서 살아 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 사이에 **중간 단계를 두지 않는다**. '죽지 않았다'는 '살아 있다'를 뜻한다.

③ '좋다 ↔ 나쁘다': 등급 반의 관계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가 반드시 '나쁘다'를 뜻하지는 않는다.

④ '춥다 ↔ 덥다': 등급 반의 관계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춥지 않다'가 반드시 '덥다'를 뜻하지는 않는다.

①·③·④는 중간 정도를 인정하는 등급 반의 관계인 반면, ②만 중간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보 반의 관계이다.

NoteBase

문 3. 두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동일한 것은?

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뛴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늘에 닿았다.

② 오늘이 바로 내가 태어난 날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③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나는 네 말대로 다 했다.

④ 그는 낭만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낭만적인 사람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하늘 높은 줄'의 '하늘'은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된 **명사**이고, '하늘에 닿았다'의 '하늘'도 조사 '에'가 붙은 명사이다. **조사의 생략 여부**가 달라도 품사는 같다.

선지별 해설

① O: 두 문장의 '하늘'은 모두 명사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처럼 주격 조사 '이'를 넣어 이해할 수 있다. 첫 문장에서 **조사가 생략되었다고 품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둘째 문장의 '하늘'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있다.

② X: '오늘이 바로 내가 태어난 날이다'의 '오늘'은 날짜를 가리키며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한 명사이다. 반면 '오늘 해야 할 일을'의 '오늘'은 **행위가 이루어질 때를 나타내며 '해야 할'을 꾸미는 부사**이다. 따라서 두 '오늘'의 품사는 명사와 부사로 다르다.

③ X: '하라는 대로'의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 '하라는'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네 말대로'의 '대로'는 명사 '말'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더하는 **조사**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차이도 드러난다.

④ X: '낭만적 성향'의 '낭만적'은 명사 '성향'을 직접 꾸미는 관형사이다. 반면 '낭만적인 사람'의 '낭만적'은 **명사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관형사형 '인'이 결합**한 것이다. 뒤의 명사를 꾸민다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두 '낭만적'의 품사는 관형사와 명사로 다르다.

NoteBase

문 4.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왜 아이를 많이 낳았을까? 아이들이 농사 짓는 노동력이 될 수 있고, 내가 늙으면 그들이 나를 부양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는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 부의 이전 이론의 골자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더 크다. 생각해보면 부모는 자녀를 길어봐야 20년 남짓 키우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언제나 더 이득이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녀를 덜 낳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훗날 나를 먹여 살려야 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많이 낳지 않는 것이다.

① 농경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피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② 농경사회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했지만, 성장한 자녀 중의 일부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

③ 부유한 가정이 자녀를 덜 낳는 이유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적기 때문이다.

④ 농경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경제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글은 자녀가 농사일을 돕고 훗날 부모를 부양하므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부모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글에서 제시한 다산의 이유는 피임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자녀의 노동력과 노후 부양**이다. 피임이 가능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X: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내용은 글에 나오지만, **성장한 자녀 중 일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글은 부모가 자녀를 20년 남짓 키운 뒤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해 주는 것이 더 크다고 설명한다.

③ X: 부유한 가정이 자녀를 덜 낳는 이유는 애정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글은 부유한 부모에게는 자녀가 훗날 자신을 먹여 살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④ O: 글에서 자녀는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자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존재이다. 글이 설명하는 '부의 이전 이론'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이 더 크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는 데에는 **양육에 들인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작용한다.

NoteBase

문 5. <보기>에서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사자성어는?

<보기>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같은 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준비하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뒤늦게 땅을 치며 ㉡만시지탄(晩時之歎)하지 맙시다.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국가의 부름에 헌신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는 항시 조그만 일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견문발검(見蚊拔劍)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견문발검'은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크게 대응함**을 비유한다. 따라서 '조그만 일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맥과 어긋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이 늘 바뀌어 **앞일을 쉽게 예측할 수 없음**을 이른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문맥에 어울린다.

② O: ㉡ '만시지탄(晩時之歎)'은 **때가 이미 늦었음을 한탄함**을 뜻한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대비하자는 내용에 어울린다.

③ O: ㉢ '견위수명(見危授命)'은 **위태로운 때에 목숨을 바침**을 뜻한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부름에 헌신해 달라는 당부에 어울린다.

④ X: ㉣ '견문발검(見蚊拔劍)'은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크게 대응함**을 비유한다. 이는 '조그만 일에 경거망동하지 않는'이라는 앞말과 반대되는 태도이다. 이 문맥에서는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야 한다.

NoteBase

문 7. <보기>의 (가)~(다)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비판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수 있을까?
존 듀이(John Dewey)는 비판적 사고를 반성적 사고, 즉 사고에 대한 사고인 '메타(meta) 사고'라고 강조한다. 메타 사고는 주어진 논의 체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논의 밖의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좁은 의미에서 수렴적 사고에 해당하지만, 거기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나) 이러한 비판은 비판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발산적 사고인 창의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사고라고 전제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런 비판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개념, 판단, 논증을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가 어떤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렴적 사고라는 점에서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기존의 주어진 논의 체계에만 국한된 비판적 사고는 시대적 요구에 둔감해 보인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논제에 대한 발상이 전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사고를 할 수도 있다. 비판적 사고는 대안 모색과 발상 전환 과정에서 논의 체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발산적 사고 일부를 포함한다.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나)의 **'이러한 비판'**은 (다)에서 제기한 비판적 사고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가리킨다. (나)가 그 비판의 전제를 검토할 필요를 제기하면, (가)가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메타 사고의 성격을 통해 그 전제를 반박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다) → (나) → (가)

(다): 비판적 사고의 성격을 소개한 뒤, 이를 기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렴적 사고로 보면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시한다. 여기서 **비판의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야 (나)의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생긴다.

(나): '이러한 비판'은 (다)의 비판, 곧 비판적 사고가 기존 논의 체계에 국한되어 시대적 요구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가리킨다. 이어 그 비판이 비판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에만 한정하고 창의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전제에서 나왔음을 밝힌다. 마지막의 **'전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다음 글에서 그 전제를 검토하겠다는 흐름을 만든다.

(가): '비판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나)가 제시한 전제의 검토를 구체화한다. 글에서 소개한 듀이의 관점에 따르면, 메타 사고는 자신의 사고와 논의 체계 자체를 돌아보는 사고이므로 그 체계 밖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수렴적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시문에 나온 발상 전환, 새로운 문제의 발견, 대안 모색도 비판적 사고가 논의 체계를 넘어 발산적 사고의 일부를 포함한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8.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꽃이 피었다[피엳따].

② 늑막염[능마겸]은 가슴막염을 뜻한다.

③ 금융[그뮹] 기관에 문의했다.

④ 방이 넓고[널꼬] 깨끗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늑막염'은 '늑막'과 '염' 사이에 **ㄴ이 첨가**되고, 두 받침 ㄱ이 각각 뒤의 ㅁ과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므로 **[능망념]**으로 발음한다. [능마겸]처럼 '막'의 ㄱ을 뒤로 이어 발음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피었다'의 받침 ㅆ은 뒤에 자음이 오므로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이 받침 뒤에서 어미 '-다'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므로 [피엳따]가 된다.

② X: '늑막염'은 [능마겸]이 아니라 **[능망념]**으로 발음한다. '늑막'과 '염'이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어 '염'이 [념]이 된다. 이어 '늑'의 받침 ㄱ은 뒤의 ㅁ 앞에서, '막'의 받침 ㄱ은 첨가된 ㄴ 앞에서 각각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발음 변화는 '늑막염 → 늑막념 → 능망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O: '금융'은 **[금늉]과 [그뮹]이 모두 허용**된다. ㄴ을 첨가하면 [금늉]이 되고, ㄴ을 첨가하지 않고 받침 ㅁ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발음하면 [그뮹]이 된다.

④ O: '넓고'에서는 어간 끝의 겹받침 ㅀ에 있는 ㅂ의 영향으로 뒤의 ㄱ이 [ㄲ]으로 바뀐다. 겹받침 ㅀ에서는 **ㄹ만 남아** 소리 나므로 [널꼬]로 발음한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①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② 색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바다, 물결'은 냉혹한 세계를 상징한다.
④ 시각을 촉각화하여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반어는 실제로 전하려는 뜻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시는 **반어가 아니라 나비와 바다의 상징 및 색채 대비**를 통해 순진한 존재가 냉혹한 현실과 부딪치며 겪는 좌절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반어는 겉으로 한 말과 실제로 전하려는 뜻이 반대가 되는 표현이다. '바다가 무섭지 않다'는 말은 바다를 무서워하면서 일부러 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수심을 몰라 바다의 위험을 깨닫지 못한 나비의 순진함**을 나타낸다. 이 시는 나비가 바다를 꽃밭처럼 여기고 접근했다가 지쳐 돌아오는 모습을 상징과 비유로 그려, 순진한 존재가 냉혹한 현실에서 겪는 좌절을 형상화한다.

② O: '흰 나비'의 흰색은 '청(靑)무우밭'과 '새파란 초생달'의 푸른색과 대비된다. **나비의 흰색과 바다를 둘러싼 푸른색의 대비**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와 차갑고 냉혹한 세계의 대립을 드러낸다. 색채가 단순한 풍경 묘사를 넘어 나비의 좌절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 준다.

③ O: 나비는 바다에 내려갔다가 날개가 물결에 젖어 지친 채 돌아온다. 또한 바다는 나비가 기대한 꽃이 피지 않는 공간이다. 이처럼 나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바다, 물결'은 냉혹한 현실 세계**를 상징한다.

④ O: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에서 초생달의 모양과 색은 시각적 대상이고, '시리다'는 차가움과 아픔을 느끼는 촉각적 표현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차갑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냈으므로 **시각의 촉각화**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감각을 결합한 공감각적 표현으로 나비의 서글픔과 상처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는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曼碩戲)*를 잘하고, 철괴무(鐵拐舞)**를 잘 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니 형은 달문(達文)이다"라고 놀려 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 버렸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땋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 만석희: 개성 지방의 무언 인형극.
** 철괴무: 중국 전설상의 팔선(八仙)의 하나인 이철괴(李鐵拐)의 모습을 흉내 내어 추는 춤.

① 외모, 말솜씨, 재주를 통해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② 재치 있게 분쟁을 해결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③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④ 자신의 분수를 알고 욕심 없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광문은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녀 모두에게 공통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대목은 인간 본성의 남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같은 성향을 지녔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단은 광문의 외모가 추악하고 입이 크다는 점, 말솜씨가 남을 감동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서술한다. 이어 만석희와 철괴무를 잘한다는 재주도 소개하므로, **외모·말솜씨·재주**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O: 광문이 옷을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시비를 판정하는 듯한 시늉을 하자, 구경꾼뿐 아니라 싸우던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리고 싸움을 그친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 결론을 내리기보다 **웃음으로 싸움의 긴장을 풀어** 분쟁을 해결하는 재치를 보여 준다.

③ X: 광문은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것은 사내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는 외모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선지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남녀에게 공통된 인간의 본성'으로 고쳐 이해해야 한다.

④ O: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자 광문은 여자도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며 자신은 본래 못생겼다고 말하고, 용모를 꾸밀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인정하고 혼인을 위해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① 그와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다.

② 보잘 것 없지만 제 성의로 알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나는 지금까지 수 차례의 고비를 넘겼다.

④ 식구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평생을 함께하다'의 '함께하다'는 **생활을 더불어 한다는 뜻의 한 단어**이다. 따라서 활용형인 '함께할'도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함께하다'는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한다는 뜻의 동사이다. 이 문장에서는 그와 평생을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이므로, **한 단어인 '함께하다'**의 활용형 '함께할'을 붙여 쓴다.

② X: '보잘 것 없지만'은 **'보잘것없지만'**으로 고친다. '보잘것없다'는 하찮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 단어의 형용사이므로, '것'을 의존 명사로 보아 따로 띄거나 '없다'를 분리하지 않는다.

③ X: '수 차례의'는 **'수차례의'**로 고친다. 여기서 '수-'는 '몇' 또는 '여러'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뒤의 '차례'에 붙인다. 조사 '의'도 앞말에 붙여 쓴다.

④ X: '한 자리에'는 **'한자리에'**로 고친다. 식구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식사한다는 뜻이므로, '같은 자리'를 뜻하는 합성 명사 '한자리'를 쓴다. 자리의 수를 세어 '하나의 자리'를 뜻하는 '한 자리'와 구별한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대화에서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A: 오늘 워크샵 가지? 준비는 잘 했어?

ㄴ. B: 어제 밤 샜어요. 안 졸려면 커피라도 마셔야 할 거 같아요.

ㄷ. A: 내가 살게. 커피 마시고 가려면 서둘러.

ㄹ. B: 왠일이세요? 아무튼 감사히 마실게요.

① ㄹ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외래어 workshop은 **'워크숍'**으로 적고,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보냈다는 뜻에는 **'밤새웠어요'**를 쓴다. '어찌 된 일'을 뜻하는 말은 **'웬일'**이므로 '왠일이세요'는 '웬일이세요'로 고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워크샵'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으므로 **'워크숍'**으로 고친다. 또 준비를 좋고 훌륭하게 했는지 묻는 문맥에서는 한 단어인 '잘하다'를 쓰므로 '준비는 잘 했어?'는 '준비는 잘했어?'로 붙여 쓴다.

ㄴ. X: B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보냈다는 뜻이므로 '어제 밤 샜어요'는 '어제 밤새웠어요'로 고친다. **'밤새다'는 밤이 지나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밤새우다'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안 졸려면'은 동사 '졸다'에 '-려면'이 결합한 표현이다. '할 거 같아요'의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이 표현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ㄷ. O: '내가 살게'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ㄹ게'**가 바르게 쓰였다. 이 어미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ㄹ께'로 적지 않는다. '가려면'은 '가려고 하면'이 줄어든 표현이고, '서둘러'는 '서두르다'가 활용한 형태로 모두 바르다.

ㄹ. X: '어찌 된 일'이라는 뜻의 명사는 **'웬일'**이므로 '왠일이세요?'는 '웬일이세요?'로 고친다.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웬일'과 구별한다. '아무튼', '감사히', '마실게요'는 바르게 쓴 표현이다.

어법에 어긋나는 대화는 ㄱ, ㄴ, ㄹ이며, 이들을 모두 묶은 것은 ④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대화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 이 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땅을 잘못 빌려준 게 핵심인가요?
B: 아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빌려준 건 문제가 없어요.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A: 왜요? 누가 지상권이라도 설정해 놓았나요?
B: 맞아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이야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알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A: 그럼 토지를 빌려준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① '임대'는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임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② B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문제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지 않고 계약한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

④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도 임차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B는 토지를 빌려준 **임대인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문제의 원인은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데 있다고 보므로,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임대'는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고, '임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이다. 대화에서도 토지를 **빌려주는 쪽이 임대인**이고, 빌려 쓰는 쪽이 임차인이다.

② X: B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빌려준 건 문제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려는지 알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B의 생각은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③ O: B는 임차인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지 않고 계약'했다고 말한다. 임차인이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한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④ O: B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A의 물음에 '맞아요'라고 답하면서도, 토지를 빌려준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도 빌려줄 수 있다고 본다. **토지를 빌려주는 것과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② 전쟁으로 생이별을 했던 형제의 상봉[相逢]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그 찻집에는 감미로운 클래식의 선율[線律]이 흐르고 있었다.

④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액자[額子]에 넣어 벽에 걸어 두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음악에서 음이 높낮이와 길이를 달리하며 이어지는 흐름인 '선율'은 **旋律**로 쓴다. '線(줄 선)'이 아니라 **'旋(돌 선)'**을 써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의(謝意)'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謝(사례할 사)'와 '意(뜻 의)'를 쓰며,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깊은 고마움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② O: '상봉(相逢)'은 서로 만남을 뜻한다. '相(서로 상)'과 '逢(만날 봉)'을 쓰므로, 헤어져 있던 형제가 만나는 상황에 맞는 한자 표기이다.

③ X: 음악의 가락을 뜻하는 '선율'은 **'旋律'로 고쳐야 한다**. 높고 낮거나 길고 짧은 음이 이어지는 흐름을 가리키며, '旋(돌 선)'과 '律(법 률)'을 쓴다. '線(줄 선)'은 이 단어에 쓰는 한자가 아니다.

④ O: '액자(額子)'는 그림이나 글씨, 사진 등을 끼워 넣는 틀을 뜻한다. '額(이마 액)'과 '子(아들 자)'를 쓰므로, 사진을 넣어 벽에 거는 틀을 '額子'로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NoteBase

문 15. <보기>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잽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예를…….”
“으엉?”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중략)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어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뎁다 경찰서에 잽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NoteBase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

① 작가가 서술자의 입을 통해 내용에 간여함으로써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작중 인물과 작가의 거리를 좁혀 설득력을 얻고 있다.
③ 장면마다 시점을 바꿈으로써 극적인 아이러니를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작품 밖의 화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관찰자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의 충격이 종학이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진시황을 두고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라고 논평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과 평가**는 손자의 처지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윤 직원 영감을 풍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서술자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라고 하여 윤 직원 영감이 충격을 받은 진짜 이유를 밝힌다. 또 진시황 이야기를 끌어와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평가한다. 이는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과 상황을 직접 논평**하는 서술이다. 작가는 이러한 서술자의 말을 통해, 종학이가 붙잡힌 사실보다 그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윤 직원 영감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여 풍자 효과를 높인다.

② X: 윤 직원 영감이나 윤 주사가 자신의 경험을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을 이름으로 지칭하면서 윤 직원 영감의 속마음까지 설명하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볼 수 없다.

③ X: 인물들의 대화와 서술자의 설명이 번갈아 나오지만, 이는 **발화자의 변화이지 서술 시점의 변화가 아니다**. 대화 전후에도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계속 전달한다. 풍자는 장면마다 시점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한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논평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④ X: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다는 점은 맞지만, 주관을 배제한 관찰자의 시점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관찰자 시점은 주로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달한다. 이 글의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두려워하는지 내면을 밝히며,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도 덧붙인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보기>

한숨아 셰 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ᄌᆞ 셰살장ᄌᆞ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ᄭᅮᆨ닥 박고 용(龍) 거북 ᄌᆞ물쇠로 수기수기 ᄎᆞ엿ᄂᆞᆫᄃᆡ 병풍(屛風)이라 덜걱 져븐 족자(簇子)ㅣ라 ᄃᆡᄃᆡ글 ᄆᆞᆫ다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ᄌᆞᆷ 못 드러 ᄒᆞ노라

① 狐假虎威
② 目不忍見
③ 輾轉反側
④ 刻舟求劍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밑줄 친 부분은 한숨과 시름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상태를 이리저리 뒤척인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통 해설

'전전반측(輾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인다는 뜻으로, **걱정이나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이른다.

<보기>의 화자는 한숨이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문을 닫아 두었다고 과장하면서도 한숨을 떨치지 못한다. 마지막의 밑줄 친 부분은 밤이면 잠들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앞에서 드러난 시름과 연결하여 전전반측의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참을 웃었더니 수술한 자리가 땅겼다.

② 다 된 혼사를 중간에서 뻐개지 마라.

③ 그 애는 조금만 추어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④ 뜨겁게 작렬하는 태양 아래 두 사람이 걷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태양이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은 **'작열하다'**로 표현한다. '작렬하다'는 포탄 따위가 터져서 퍼지는 것을 뜻하므로, '작렬하는 태양'은 '작열하는 태양'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땅기다'는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는 뜻이다. 웃고 난 뒤 수술한 자리의 피부가 **팽팽하게 조이는 느낌**을 나타내므로 '땅겼다'가 문맥에 맞는다.

② O: '뻐개다'에는 물건을 가른다는 뜻 외에 **거의 다 된 일을 완전히 어긋나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성사될 혼사를 중간에서 망치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뻐개지 마라'가 적절하다.

③ O: '추어올리다'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조금만 칭찬해도 그 애가 우쭐해진다는 문맥이므로 '추어올리면'이 적절하다.

④ X: '작렬하다'는 포탄 따위가 터져서 퍼지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작열하는 태양'**으로 고쳐야 한다. '작열하다'는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르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ㅣ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ᄌᆞ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즁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나)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긔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① (가)와 (나)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다.

② (가)의 경우, 자연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니 그 속에서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작자의 마음이 나타난다.

③ (나)는 현실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세속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나)는 물·돌·소나무·대나무·달을 **벗**으로 여기며, 이 다섯이면 충분하다는 **자족적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세속적 욕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작품의 내용과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청산·유수·청풍·명월 속에서 근심 없이 늙어 가려는 삶을 노래한다. (나)는 물·돌·소나무·대나무·달을 자신의 벗으로 여기며 반가워한다. 두 작품 모두 자연을 인간의 삶과 어우러지는 대상으로 받아들여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보여 준다.

② O: (가)에서 맑은 바람에는 값이 없고 밝은 달에는 주인이 없다는 표현은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병 없는 몸으로 근심 없이 늙겠다는 마지막 구절은 평온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드러낸다.

③ X: (나)의 화자는 물·돌·소나무·대나무에 달까지 더해 다섯 자연물을 벗으로 삼는다. 특히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는 이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자연을 벗으로 삼아 만족하는 삶**을 노래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늙어 가겠다는 뜻을 밝힌다. (나)의 화자는 자연물을 벗이라 부르고 달이 떠오르는 것을 반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에서 모두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NoteBase

문 1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수렵과 채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던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무척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동식물을 섭취했으므로 영양 상태도 좋았을 것이며, 주거지를 계속 옮겨 다녔으므로 배설물 같은 오염원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것은 질병보다는 주로 사냥 중에 발생한 외상이나 열매를 따러 올라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사고였을 것이다. 그와 같은 손상에 대한 대처 방법은 주로 직접적인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의학이 체계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농경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몇 안 되는 종류의 작물과 길들여진 동물에 의존하여 살게 됨에 따라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어려워지자 영양실조가 늘어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배설물과 폐수 같은 오염물질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 일정한 자세로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농사일 때문에 골관절계 질환도 많아진다.

①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② 생활 방식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③ 생활 방식에 따른 건강 상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생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농경 생활에서 영양실조·전염병·골관절계 질환이 늘어난 원인은 설명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단은 수렵·채집을 하며 이동하던 생활을, 둘째 문단은 농경 기술이 발달한 뒤 정착한 생활을 설명한다. 이처럼 **수렵·채집 생활에서 농경·정착 생활로** 바뀌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다.

② O: 다양한 동식물을 먹고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고 오염원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농경 생활에서는 제한된 먹거리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밀집 거주로 오염물질에 노출되며, 반복적인 농사일로 관절 등에 질환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를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고 있다.

③ O: 첫 문단에서는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조상들이 대체로 건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건강을 위협한 요인도 주로 사고였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문단에서는 농경·정착 생활 이후 영양실조와 여러 질환이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하지만'을 경계로 두 생활 방식에 따른 **건강 상태의 차이**를 대조한다.

④ X: 농경·정착 생활로 영양실조·전염병·골관절계 질환이 늘어나는 문제는 제시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첫 문단의 '직접적인 경험과 직관'은 당시 손상에 대처하던 방식과 의학 발달의 한계를 설명한 것이며, 농경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와 해결 방안'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 따른 건강 문제와 그 발생 원인**을 설명한다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밀의 알맹이는 배유, 껍질 그리고 배아로 구성돼 있다.
이 알맹이를 통곡물 그대로 빻아 만든 가루가 통밀가루이고, 알맹이에서 껍질과 배아를 제거한 후 오직 배유만 남겨 빻은 가루가 우리가 아는 하얀 밀가루다. 껍질과 배아만 제거했을 뿐인데, 두 가루로 만든 빵의 맛은 하늘과 땅 차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이는 글루텐 때문이다. 글루텐은 빵의 식감을 결정하는 핵심 성분으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물과 함께 섞이면 만들어진다. 끈적한 성질이 있어, 반죽에 열을 가했을 때 효모(이스트)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잘 포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빵은 푹신푹신하고 쫄깃쫄깃하다. 글루텐의 재료가 되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배유에 있다. 정제된 흰 밀가루는 배유만 있으니, 당연히 글루텐이 잘 생긴다. 하지만 통밀빵은 함께 갈린 껍질과 배아가 글루텐을 잘라내 빵 반죽이 잘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한다. 100% 통밀가루로만 만든 빵은 반죽 밀도가 높아서 조직이 치밀하고 식감이 푸석푸석하다.

①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흰 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 조직이 치밀하다.
② 통밀가루에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없다.
③ 배유의 성분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에 영향을 준다.
④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 글루텐의 함량이 높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통밀가루는 배유까지 함께 빻은 것이므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을 포함한다**. 통밀빵이 잘 부풀지 않는 까닭은 이 성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갈린 **껍질과 배아가 글루텐을 잘라내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 마지막에서 100%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반죽 밀도가 높아 조직이 치밀하다고 설명한다. 함께 갈린 껍질과 배아가 글루텐을 잘라내므로 반죽이 **잘 부풀어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X: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배유에 들어 있다. 통밀가루는 껍질과 배아뿐 아니라 **배유도 포함**하므로 두 성분이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없다'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배유에 있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물과 섞여 글루텐을 만든다. 글루텐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도록 도와 빵을 부풀게 하므로, 배유의 성분이 빵의 부풀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해는 지문에 부합한다.

④ O: 지문은 배유만 남긴 흰 밀가루에서는 글루텐이 잘 생기는 반면, 통밀가루에서는 **껍질과 배아가 글루텐을 잘라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의 글루텐 함량이 통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NoteBase